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구술시험

정시모집 [의예과] Part I

[문제 1] 아래의 제시문 (가)~(다)를 읽고서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인간 외의 동물들도 폭군이 아닌 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프랑스인들은 피부가 검다는 것이 한 인간에게 멋대로 고통을 주고도 보상하지 않고 내버려 뒀도 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미 발견했다. 언젠가 다리의 수, 피부의 용모 여부 등이 감각이 있는 존재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고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무엇이겠는가? 이성의 능력인가, 아니면 혹은 소통하는 능력인가? 그런데 완전히 자란 말이나 개는 생후 1주일이나 1개월이 된 유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더 잘 통하고 더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이다.

[제시문 나]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즉,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은 이들에게는 자명하다. 수 세기 전부터 전해 내려와서 서양의 사고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관념에 따르면, 인간은 오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는 구분된다. 인간은 어째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덕원리를 해치는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의 ‘형법’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제시문 다]

마음은 철학적 개념인 반면 지능은 생물학적 개념이다. 지능은 환경에 따라 상대적이다. 즉 특정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진화 과정에서 생존과 번식에 성공하면 그것은 지능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능도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혹은 인간 아종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동물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각각의 종(種)마다 일정 수준의 지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해야 적절하다. 그래서 정글에서는 침팬지가, 바다에서는 돌고래가 더 “똑똑하다”.

우리는 혹시 인공지능(AI)을 인간과 너무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아닐까? 나는 인간의 지능이나 마음이 인공지능의 기준이나 모델이 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럴 경우에 인공지능이 다른 동물 종처럼 지능을 갖춘 새로운 종으로 출현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생물과 인공지능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본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을 기준으로 동물의 지능을 평가해서는 아니 되듯이 인공지능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기본이라는 말이다.

[문제 1-1] 동물 및 인공지능과는 달리 인간만이 완전한 권리를 가진 법적 주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정당화하는 여러 논거를 위 제시문을 통해 설명하시오. (15점)

[문제 1-2]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의사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 사회 전체 차원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15점)

【문제 2】 아래의 제시문 (가)(나)를 읽은 후 주어진 그림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1870~1880년대는 제정러시아의 정치적 격변기였다. 짜르였던 알렉산더 2세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다양한 혁명가집단이 성장했다. 그들은 인민의 권력을 인정하면서 제정 폐지를 주장했다. 짜르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권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일상적이었다. 1881년 테러조직 나로드나야 볼리야(Narodnaya Volya)는 짜르 암살에 성공했다. 그의 뒤를 이은 알렉산더 3세는 내부대신 드미트리 톨스토이 공작과 함께 무정부주의와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강력한 정책을 집행했고, 그 결과 테러리즘과 특별한 관계가 없던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유배당했다.

일리아 레핀이 그린 이 작품의 제목은 “Unexpected Visitor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1884-1888)”이다. 오랜 유배를 마치고서 집에 돌아온 지저분하고 작달만한 남성과 그를 맞이하는 가족이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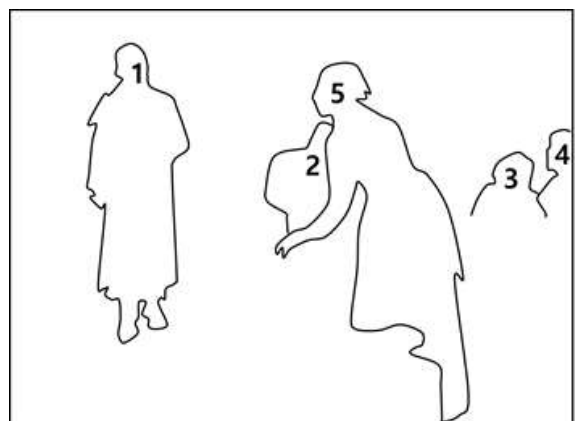
[제시문 나]

미술 작품 속 사람의 몸짓 언어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손가락의 자세, 손의 움직임, 팔의 위치, 머리의 기울어짐, 얼굴 표정, 다리의 위치, 몸의 전반적인 자세를 따로따로 보면서, 인체의 각 부위를 차례로 훑는 것이다. 이 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좀 무미건조하고 학술적이다. 그보다는 특정한 유형의 몸짓 언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살펴보는 쪽이 더 얻는 것이 많다. 그 몸짓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일까? 어떤 감정을 그려내는 것일까?

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눈빛 표정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시각신호를 전달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의 기분을 알려준다. ... 홍채 위 또는 아래에 흰자위가 드러날 만큼 눈을 크게 뜨는 것은 가벼운 놀라움을 나타내는 기본 반응이다. 이 동작은 눈의 시계를 넓히고 시각 자극의 반응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눈의 자동 반응을 적지 않게 이용하여 의도적이고 '연출된' 놀란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

【문제 2-1】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번호 2~4)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지 그림에 묘사된 표정과 몸짓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특히 검은 옷을 입은 여성(번호 5)의 표정은 그림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 것으로 짐작되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 해당 그림은 별도 자료 참조

【문제 2-2】

그림 속의 남성 (번호 1)은 어떤 감정일지와 그가 가족에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가족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시오. (10점)

